

‘문화 냉전’과 유학 오리엔테이션 영화: 미군정 하 일본 본토 및 오키나와의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쓰치야 유카(土屋由香) 愛媛大學法文學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는 점령지역지원기금(GARIOA)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많은 청년들을 미국 대학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이 논문은 일본 본토 출신의 남자 유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교환 학생의 일 년(Year in America)>, 역시 일본 본토 출신 여자 유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미국으로 가는 길(Introduction to America)>, 오키나와 출신 유학생이 주인공인 <내일을 이끄는 사람들(Leaders for Tomorrow)> 등 모두 세 편의 미국 문화정보국(USIS) 영화를 소재로 ‘문화 냉전’의 양상을 살피고 있다. 이들 영화는 모두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유학 생활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영화로 제작되었지만, 실제 관객은 유학생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 영화들은 일본의 일반 국민들에게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리는 매체로 기능했으며, 일본 국민들은 이 영화를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풍요로움이 뒷받침된 친절과 봉사정신 등 미국의 가치들을 알아갔다. 나아가 패전국 일본 국민들에게 심리적 재건(rehabilitation)을 실시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는 기능도 하게 되었다. 이 영화들은 ‘순수한’ 유학 소재 영화라기보다는 ‘냉전’적인 프레임 속에서 생산·소비된, 일종의 ‘문화 냉전’의 산물이었다. 한편으로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출신 유학생을 각각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통해 동아시아 냉전의 ‘중심부’(일본)와 ‘주변부’(오키나와)의 문화 냉전의 산물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져 소비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어 문화 냉전, 유학 오리엔테이션 영화,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GRIOA 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s), 일본 본토, 오키나와

I. 들어가며

유학 제도가 외국의 국민이나 여론에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공보문화 외교(public diplomacy)로서 중요성을 갖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외무성도 유학 제도가 ‘장래의 일본과 각국의 상호 이해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 판단해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보문화 외교의 일환으로 유학 제도를

번역: 유미코 야마토/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추진해왔다.¹ 아마도 세계 여러 국가의 정부가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유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모국으로 돌아가 유학했던 나라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켜 장래에 양국의 가교가 됨으로써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초기에, 미국 정부는 이미 이러한 유학 제도의 역할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옛 적국인 일본에 친미 파 리더를 키워 반공 동맹으로 미일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육군성의 점령지역지원기금(GARIOA: 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을 이용해 일본 국토와 오키나와에서 많은 청년들을 미국으로 보냈던 것이다. 점령지역지원기금은 점령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 등을 긴급 수입하는 데 사용된 미국 육군성 예산이었다. 일본은 1949년부터 이 자금을 이용하여 미국 대학에 유학생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제도는 1952년 일본 본토에서 풀브라이트 유학 장학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에 흡수되는 식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정이 끝나고 본국으로 복귀하는 1972년까지 이 유학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프로그램(미국국립공문서관, 1951a)은 워싱턴에 있는 육군성 ‘재교육부’에서 운영했다. 미 육군성 보고서에 의하면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제도의 목적은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얻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민주적인 생활체험을 통해 미국을 좋아하게 되고, 또 그 곳에서 배운 것을 일본으로 가져가 활용하면서 이를 통해 ‘일본·미국이 이해(利害)를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었다. 특히, 당시 30~40대의 일본인은 전전·전중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 잘 모르지만, 후에 각 방면의 지도적인 위치에 오르게 될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 세대를 중점적으로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었다(미국국립공문서관, 1951b). 즉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제도는, 적어도 육군성 혹은 교육부의 인식으로는, 일본 엘리트층에게 친미 민주주의를 주입시키는 ‘재교육’ 프로그램임과 동시에 동맹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문화적

¹ 일본 외무성, ‘공보문화 외교(해외공보·문화교류)’, <http://www.mofa.go.jp/mofaj/gaiko/culture/hito/ryu/index.html>(검색일: 2015. 2. 10).

해계모니를 확대하기 위한 냉전 무기이기도 했다.

미 육군성은 또한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이 배우로 출연하는 정부 공보 영화를 제작했다. 일본 본토의 남자 유학생이 주인공인 〈교환학생의 일 년(Year in America)〉, 여자 유학생이 주인공인 〈미국으로 가는 길(Introduction to America)〉 등 두 편은 주로 후속 유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영화'로 제작되었다. 하지만 미 문화원(USIS) 영화(미국공보문화교류국이 여러 나라에서 상영하고 있던 정부 홍보 영화)의 하나로 널리 일본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오리엔테이션 영화'의 틀을 넘어 미국의 고등교육 제도나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공보문화 외교의 역할까지 담당했다. 영화에는 주인공들이 유학생들을 통해 학문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선의나 자유로움, 그리고 민주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배우는 태도가 묘사되어 있다. 또한 오키나와의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을 묘사한 〈내일을 이끄는 사람들(Leaders for Tomorrow)〉에도 후속 유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영화'라는 측면은 있었으나, 이 영화 역시 '미문화원 영화'로 공개되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영화는 오키나와에서 상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재(戰災) 부흥에 기여하는 젊은이들의 모습과 미국 정부의 지원을 묘사하는 다큐멘터리로서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도 미문화원 영화로 상영되었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세 편의 영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 영화들이 냉전 체제 하에서 완수한 중층적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먼저 〈교환학생의 일 년〉과 〈미국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 학생들의 실제적인 오리엔테이션 영화였다. 둘째, 영화는 일본 국민 일반에 대한 미국 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고등교육의 우월성을 전하는 공보문화 외교로 기능했다. 셋째, 영상은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담아낸 '다큐멘터리'였다. 유학생들은 '전후 일본 재건의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의욕과 희망을 안고 도미(渡美)'²한 젊은 엘리트들이며, 미래의 리더들이었다. 유학생들의 웅장한 모습(雄姿)은 미국에 포섭된, 전쟁과 식민주의의 과거를 잊고, '밝은 미래'를 목표로 하는 일본인을 위한 '국민적 오리엔테이션 영화'였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 “ガリオア留学の回想 1951-1952”(コリンズ会、1990年), p. 1.

영화 <내일을 이끄는 사람들>은 유학생들이 향토 재건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을 갖추고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부흥 지원을 위해 오키나와 젊은이들의 유학을 지원한다는 도식은 가혹한 전장(戰場)이 된 오키나와에서 미국의 이미지를 수정하는 심리적 재건(rehabilitation)의 의미도 있었다. 한편 유학생 자신들로서는 전후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나아가 이 영화는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부흥 지원을 강조하는 다큐멘터리로서 세계의 개발도상국에서도 상영되었다. 오키나와가 미국에 의한 부흥 지원의 하나의 모델 사례로 냉전 시대의 세계에서 선전 가치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세 편의 영화들은 본토와 오키나와의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의 의미와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각각의 유학 제도가 냉전 세계에서 해왔던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의 냉전 연구에서는 10여 년 사이에 문화적 요소가 분석 대상으로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냉전 자체의 정의(定義) 또한 변경이 요구되어 왔다. 즉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핵개발 경쟁, 경제체제 경쟁 등 비교적 가시화되기 쉬운 요소 외에도 문화와 정보, 국가 이미지 등 이른바 ‘소프트 파워’ 요소가 냉전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러한 냉전의 한 측면을 가리키는 정의로서 ‘문화 냉전’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그러나 문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상국의 미래 위상을 확립했는지, 또한 현실의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문화와 정치적 ‘권력’과의 관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어쩌면 문화 분석은 ‘어느 문화가 더 우수한가?’라는 문화적 우위성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을 설명하는 데 그치거나, 국가 간 대립에도 불구하고 문화 측면에서는 선의(善意)의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단순한 긍정적 평가로 빠져버리기 십상이다. 물론 문화적 우열을 둘러싼 경쟁과 선의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 그러나 문화 냉전 연구에서는 문화 현상의 심층에 자리한 정치 권력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유학 제도와 그것을 그리는 영화라는 두 공보문화 외교 수단(tool)을 분석함으로써 그것들이 미국과 일본, 미국과 오키나와, 그리고 미국과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찰한다. 그럼으로써 문화와 권력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 냉전의 본질을 밝힐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II.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제도

1949~1950년 일본 본토의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은 공개선발이 아닌 대학교원 53명이 시험적으로 파견되었다. 따라서 공개선발된 1950~1951년도 유학생 280명이 공식적인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제1기생이라 할 수 있었다. 1951~1952년에는 7000명에 가까운 응모자 중에서 473명이 선발되었다. 이들은 여러 군데의 미국 대학에서 6개월간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전공에 따라 미 전역의 대학에 분산되어 공부했다.³ 우선 이 논문에서는 이 제2기(1951~1952) 162명의 유학생 회고록을 바탕으로 그들이 어떤 젊은이들이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 육군성이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제도에서 기대한 것은 전전·전중 교육을 받은 세대를 친미파로 재교육시켜 '일본과 미국이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회상록에서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전전에 이미 어떤 형태로든 서양 문화를 가까이 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응모자 중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계층을 뽑게 된 이유는 영어 구사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응모자들의 대부분은 애초에 미국이나 서양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당시는 매카시즘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물'을 입국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매우 예민했다. 따라서 알맞게도 '전전·전쟁 중에 교육을 받으면서' 사상 교정이 필요하다고 간주된 인물이 아닌, 처음부터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지닌 인물을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전)유학생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그곳에 지인이 많아 서해안에 있는 대학교를 희망했으나, 오히려 메인 주에 있는 작은 대학교를 다니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沼澤千恵子,

³ The GARIOA Student Program, RG331, CIE, box 5485. 미국국립공문서관.

1990: 4). 또 다른 (전)유학생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란 이른바 ‘미국으로 돌아간(歸美) 2세대’로,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을 계기로 다시 미국에서 의학의 길을 걸었다(David 福田, 1990: 7). 또 “초등학교 시절 5년간의 런던 생활과, 영국인 초등학교에 다녔으며, 맹렬 여장부로 알려져 있던 요크셔 출신 보모 손에 컸다”고 자신의 성장과정을 소개한 (전)유학생도 있었다(高垣健, 1990: 24).

나중에 소개할 〈미국으로 가는 길〉 주인공 역시 서양 여러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젊은이들에게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체험은 지금까지 무관했던 자유나 민주주의를 전수 받는 체험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전·전중에 일정 기간 억압받았던 ‘서양적인 것’으로의 회귀였던 셈이다.

이 ‘서양 회귀파’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룹 외에 또 하나의 유형으로 전쟁 전부터 이미 해외 교류는 물론 전문직 경험이 있으며,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능력을 높인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유학을 결정한 집단도 있었다. 예컨대 1930년대에 보험회사에 취직해 미국에서 보험에 관한 최신 지식을 습득하고 귀국한 세키토 요시조(関戸好藏, 1990: 22-24)나, 화학공학 전문가였으며 그 분야에서 최첨단 연구에 종사하기 위해 컬럼비아대학교와 예일대학교에서 연구한 요시다 후미타케(吉田文武, 1990: 45-46), 또 연출가 지망생이었으며 예일대학교에서 연극을 공부한 뒤 귀국하여 일본TV 프로듀서가 된 히구치 유즈루(樋口護) 등이 그 그룹에 해당되었다. 첫째 그룹과 둘째 그룹은 중복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특히 이 둘째 그룹 중에는 그 후 경제계의 중요 인물이나 통상관료, 연구자, 미디어 관계자, 외교관이나 주영대사, 주미대사 등 전후 일본을 이끈 쟁쟁한 멤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그룹 사람들에게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은 확실히 미국에서의 지식 전수라는 이유도 있었으나 가장 큰 의의는 자신의 입신출세나 국가 부흥을 위한 단서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두터운 층의 ‘친영미파(親英米派)’인 일본인들이 종전(終戰) 직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20세기 초반부터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1905년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20세기가 ‘태평양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1898년, 미서(米西)전쟁에 승리하고 하와이와 필리핀을 영유한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의 토대를 굳혀갔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일본을 다

른 제국주의 국가로 인식하면서, 미일 지식인 사이에는 다양한 지적 교류가 생겼다. 당시, 서양에서 지배적이었던 '과학적 인종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인은 일종의 인종적으로 열등한 동양인(oriental)이었다. 미국 지식인들은 그러한 일본인이 신흥 식민제국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강국이 되고 있던 것에 주목했다. 백인 지식층 중에는 일본인이 향후 미국과 태평양을 나누는 패권국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을 이해하고 우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패권주의적 친일파'의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친일주의는 일본인이 다른 아시아 민족보다 인종적으로 우수해서 다른 민족을 통치·지배할 능력이 있는 '예외적인 오리엔탈'이라는 이론에도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미국 측의 움직임에서 촉발되는 방식으로 일본의 '친미 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은 1920년대 태평양문제조사회(IPR)였으나, 그 이전에도 유학생이나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일본인들은 일정 수 있었다. 그리고 1920년대 미일 밀월시대에 양국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관계는 단번에 확대되었다. 그 시대에 육성된 '친영미파'에게 태평양전쟁은 단순한 역사적 '일탈'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쟁이 끝나고 군국주의가 없어지면 또 미일 우호의 시대가 돌아오리라는 것은 자명한 논리였다.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에 응모한 '서양적'인 청년층의 존재는 이러한 역사적 계보의 연장선상에 자리하고 있었다.⁴

그러나 원래 서양 문화에 익숙한 청년들이 선정되었다고 해서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제도의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전)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 회상록 중에는 “이번 유학 중에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미국인들의 다정함, 따뜻함, 너그러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沼澤千恵子, 1990: 5), “바로 몇 년 전까지 적국이었던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을 아무런 편견도 없이 환영해주셨다”, 미국인 가족의 넓은 마음에 “머리가 수그러질 정도였다”(吉井美和子, 1990: 3) 등의 표현이 곳곳에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즐겁고 따뜻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희귀한 것은 아니지만,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의 특

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土屋由香, “親米日本の構築 - アメリカの対日情報・教育政策と日本占領”(明石書店, 2009년) 제1장 ‘占領政策への伏線としての「親日派」の系譜’를 참고. 태평양문제조사회에 대해서는 山岡道男, “太平洋問題調査会(1925~1961)とその時代”(春風社, 2010년); 片桐庸夫, “太平洋問題調査会の研究,”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3년 등을 참고.

수성을 논하자면, 일본이 전후 부흥의 길을 모색했던 시기에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다하게 될 젊은이들이 결정적인 ‘친미화’ 체험을 했다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일본이 국가로서 나아갈 방향성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증거는 회상록의 곳곳에서 알 수 있다. 예컨대 “귀국 후 40년에 가까운 생활에 미국 지향이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碧海美代子, 1990: 15)나 “매카시 선풍, 케네디 암살,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이 크게 흔들렸을 때 저의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신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高垣健, 1990: 25) 등의 표현으로 뒷받침된다. 유학 전부터 통산성에서 일했으며 그 후에 통산국장이 된 하라다 아키라(原田明, 1990: 66)는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체험은 “나의 이후의 생애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며, 미국은 제2의 모국이라고 말한다. 하라다는 그야말로 육군성이 의도한 대로 ‘일본과 미국이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귀국하였고, 40년 후에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일본과 미국은 이제 단순히 ‘상호 이익적’인 의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상호불가결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교류와 공존은 그 정도로 깊이 엮여져 있다는 말이다. 평화와 자유, 번영과 행복을 인류에게 초래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일·미 글로벌 파트너십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미국 유학에서 배운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일 것이다.

또 나중에 NHK 국제국장이 된 요시다 가즈토(吉田和人, 1990: 146)도 “점령지역 지원기금 유학은 그 후 내 인생 행로에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나의 제2의 고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셀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중에는 반공 정책 속에서 “미래 일본의 지도자가 될 만한 계층에게 미국을 견문시켜 미국의 좋은 이해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냉철하게 분석했던 유학생도 있었다. 그는 미국인이 대체로 “정말로 친절하며 패전국 일본인을 멸시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는 것은, “자유세계의 지킴이”로서 나라의 융성기에 “미국 국민 각자가 사명감에 불타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이 아닐까 분석한다(甕哲司, 1990: 84).

또 미국인의 따뜻하고 넓은 마음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것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었던 것을 인정하는 (전)유학생들도 있다. “고국에서는 아직 배급품인 설 탕이 탁상에 놓여 있어 원하는 만큼 커피에 넣을 수 있는 사치”(碧海美代子, 1990: 15)를 회상하는 사람이나 “식료품의 풍부함은 말할 것도 없이 전기청소기·스팀다리미·텔레비전 등이 일반 가정에, 공기조절 설비가 일반 상점에” 보급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은 도대체 언제쯤 이렇게 풍족해질 것인가”라고 자문한 사람도 있었다(麴哲司, 1990: 84). 유명 사립여자대학인 브린모어 칼리지에서 유학한 오모리 가즈코(大森和子, 1990: 107-110)는 “큰 나무들과 푸른 잔디밭 속에 중후한 유럽풍 건물로 수놓은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캠퍼스,” “[‘가정과 정원(Home & Gardens)』 잡지 화보(グラビア·그라비아) 사진]처럼 아름답게 정돈된 기숙사 방,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에 … 테이블에는 새하얀 십자가”가 걸려 있는 식당, “방 청소도 시트 교환도 모두 메이드가 해 주는” 기숙사 생활에 놀라고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미국 학생들은 대체로 매우 온화하고 친절하며 배려가 있었는데, 역시 혜택 받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40년 후의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면 오모리는 “우리의 현재 일본 생활도 40년 전과 비교하면 풍요롭다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브린모어에서 슬쩍 엿본 미국의 풍족한 일상과 그것에 기반하는 정신적인 여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감상을 적고 있다.

한편 미군정 하 오키나와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은 본토의 유학생들과는 매우 이질적이었다. 전전·전중에도 일본의 정치적·문화적 헤게모니 속에서 주변에 놓여 왔던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로서 대량의 희생자를 낳았다. 이와 동시에 행정적·교육적 기반도 괴멸 상태에 빠져 있었다. 1950년 12월에는 류큐(琉球)열도 미국 정부(USCAR)가 발족되어 민정 이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일본인 인재 육성이 급선무였고, 동시에 미국에 의한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심리적 재건이 필요했다.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제도에 응모해 선발된 오키나와 사람들은 구미생활 경험이 있었던 본토의 엘리트 유학생과는 달랐다. 예컨대 종전 후, 미군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거쳐 1951년 오하이오 주 월밍턴대학교로 유학한 아가리에 나리우키(東江平之, 2008: 38)는 그때까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당시 오키나와에서 최고학부(學府)의 하나라고 불린 오키나와 외국어학교에 입학해 1년간 영어 학습에 전념할 수 있었다. 미국 유학을 의식하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갖춘 어학능력이 나의 유학을 뒷받침하는 큰 재산이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외국어학교 수료 후, 유학까지 약 2년간은 바텐더, 통역, 영어교사, 요양 등으로 보냈다. 전후 오키나와 사회의 미래상이 아직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의식 따위의 과장된 것은 작동하지 않았다. 여하튼 나의 유학까지의 10년은 키워드로 정리하면 전시하의 통제, 궁핍생활, 동란, 강제노동이며 또 현대식 표현을 빌리자면 법에 따른 인권 보호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사회구조와 미래상은 끝없이 불투명했다.

이미 한국전쟁 특수로 전후 부흥의 조짐이 보이며 미국과의 관계를 기축으로 서방측 진영의 일원으로 국제적인 위상을 회복하려 했던 일본 본토와 달리 오키나와의 미래는 ‘끝없이 불투명’했다. 회상록 중에는 1년간의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후에도 일본 출신 현지인의 도움으로 정원사나 하우스보이로 일하면서 고학해 미국에서 대학교육을 계속 받았던 이야기나 브라질로 이주해 미국에서 얻은 전문지식을 활용한 이야기 등, 본국으로 돌아가 ‘일본과 미국 간의 가교’가 된 본토의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과는 전혀 이질적인 체험담이 소개되어 있다(比嘉幹郎, 2008). 물론 귀국 후에 연구자가 된 미야자토 세이젠(宮里政玄)이나 NHK 경영기획실 국제협력 담당주관을 지낸 가비라 초세이(川平朝清)와 같이 일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오른 사례도 많다. 그러나 본토에서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일미 관계를 기초로 한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장을 보강할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비해 오키나와의 사정은 매우 달랐다. 오키나와에서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은 미국 정부 측에서는 공보문화 외교라기보다도 오히려 ‘실무자 양성’과 ‘재건’이라는 급선무에 대응하는 것이었으며, 오키나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생존(survival) 수단’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오키나와에서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은 귀국한 후 ‘미국 유학과(米留組)’로 불리면서 오키나와 사회에서 특별한 엘리트층을 형성해 나갔다는 것 또한 지적해야 한다. 오키나와 메이오대학교(名櫻大學)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야마자도 기누코(山里絹子, 2014)는 하와이대학에 제출한 박사 논문에서 오

키나와의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동창생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오키나와 사회에서 선망·존경·반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시선으로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 자신도 향토 부흥을 담당하는 엘리트 집단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일말의 죄책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귀국한 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일본 본토의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과 오키나와 지역 유학생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미문화원 영화에 대하여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일본점령군(정확히는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 GHQ/SCAP)의 민간정보교육국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400여 편의 다큐멘터리 단편영화를 상영했다. 영화 주제는 미국의 문화와 풍경에서부터 위생, 국제 문제까지 여러 갈래에 걸쳐 있었다. 그중에는 일본 영화사에 의해 제작된 작품도 있었다. 영화는 도시에서 극장영화와 세트로 상영되었거나 농어촌에서도 순회 상영되었다. 또한 학교나 기업·관공서 연수에서도 상영되었으며 점령 종료 시까지 일본인은 한사람 당 평균 10여 편의 민간 정보교육 영화를 감상했다. 미 육군성은 민간정보 교육영화 상영을 위해 '나트코(Natco)'(시카고의 영사기 제조회사, 내셔널·컴퍼니의 약칭)라고 불리는 16mm 영사기 1300대를 점령군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민간 정보교육 영화는 일본인 사이에서 친근감을 담아 '나트코영화'라고 불리게 되었다. 민간 정보교육 영화 프로젝트는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점령군의 미디어정책의 일부였다. 민간 정보교육의 임무 중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민주주의의 이상이나 원칙을 보급 선전하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간정보 교육 활동은 육군성 재교육부가 보낸 영화나 인쇄물 등의 '소재', 그리고 프로젝트나 자동차 등의 하드웨어에 의해 지원되었다.

이렇듯이 미국 측에서 민간 정보교육에 협조하고 있었던 육군성 재교육부의 견해에 의하면 - 미국 측에서 보유하고 있던 보고서 - 대일(對日) 미디어정책은 '이타주의에 의거한 전망이 불투명한 모험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며 미국·일본 및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의 복지·평화·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

이어야 하며 활동 하나 하나가 ‘일본인을 미국 측으로 이끌기 위한 계산된 절차’여야 했다. 육군성은 민간 정보교육 영화를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는 유력한 미디어라고 간주한 것이다. 또한 육군성의 문서는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전후에 분명한 방침 전환이 있었다는 것을 기재하고 있다. 전쟁 발발 전에는 주로 미국 소식을 소개하는 데에 주력했으나 전쟁 발발 후에는 ‘이 목적에 더해 미국 및 UN의 입장 설명, 공산주의의 공격으로 인한 세계적 위기에 대한 해설’에 역점을 두었다.⁵ 이와 같이 육군성은 민간 정보교육 영화는 일본을 반공 블록에 붙잡아 두기 위한 ‘정치 교육’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적인 상영 활동은 문부성을 통해 설치된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 시청각 라이브러리를 거점으로 일본인들 손에 의해 실시되었다. 문부성의 설명에 의하면 민간 정보교육영화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리 국민은 전쟁 중, 군국주의, 국가주의 아래에서 국제 정세를 아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정세는 물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올바른 눈을 가지지 못했다. 연합군 총사령부에서는 포츠담 선언 조항에 따라 시각교육을 통해 일본인의 국제 정세에 대한 계몽과 일본의 민주화를 꾀하기 위해 도도부현에 16mm 발성영사기 및 영화를 대여하게 되었다...⁶

문부성의 설명에 의거해 일본 측의 상영 관계자나 시청자는 민간 정보교육 영화를 오로지 국제 정세나 민주주의에 대한 ‘계몽’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몇몇 현(縣)에서는 『민간 정보교육 영화감상 안내서』 등이 제작되어 영화의 내용이나 관람 후 토론의 요점까지 일일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교육영화의 상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은 또한 일본영화교육협회 등이 추진하던 전후의 ‘교육

⁵ Reorientation Branch, Office for Occupied Areas, Office of the Secretary of the Army, *Semi-Annual Report of Stateside Activities Supporting the Reorientation Program in Japan and the Ryukyu Islands*, January 1951; *Annual Report of Activities Supporting Reorientation Program in Japan and the Ryukyu Islands*, July 1951, RG407, FOA, box 1813, 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マイクロフィッシュ. 原本は米国立国会図書館(NARA)所蔵.

⁶ “発社一〇三号”, 昭和二三年十月二六日, 都道府県知事宛, 文部次官 有光次郎, CIE, box 5218.

영화 *봄*에 따른다는 이유도 컸다. 이와 같이 민간 정보교육 영화의 일면은 문부성이 각 현(縣)의 협력 아래 실시하는 일본 프로젝트이자, 또 다른 모습은 미 육군성과 점령군이 실시하는 미국 정부의 프로젝트였다. 일본을 서방측에 붙잡아 두기 위한 ‘정치 교육’이라는 미국 측의 목적과 ‘계몽’ 수단이라는 문부성의 설명 사이에 보이는 차이는 단순히 일본과 미국 간의 해석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정보교육 영화 그 자체의 다의성을 말해 주고 있다. 한 편의 민간 정보교육 영화 속에 초차 ‘정치 교육’의 요소와 ‘계몽’의 요소가 혼재하고 있었다. 또 상영자나 시청자의 해석에 따라서는 민간 정보교육 영화는 ‘오락’이자 또한 보다 나은 생활의 욕망을 자극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었다.

점령의 종결과 함께 민간 정보교육 영화는 ‘미문화원 영화’로 명칭을 바꾸어 국무성(미국대사관)의 관할로 옮겨졌고 전국 13개소의 ‘미국문화센터’(이후 ‘미국센터’)에서 계속해서 상영되었다. 미국문화센터에서는 소장 자료를 수시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용도를 다한 필름은 폐기하거나 혹은 본국으로 되돌려 보냈다(渡辺靖, 2008: 54-57). 그러나 미국문화센터에서 현립(縣立)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의 시청각 도서관으로 이관되어 오늘날까지 보관되어 있는 필름들도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필름센터와 사단법인 기록영화보존센터가 협력해 복원 보존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IV. <교환학생의 1년>과 <미국으로 가는 길>

점령이 종결에 가까워진 시기인 1951년부터 1952년에 걸쳐 제1기와 제2기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의 경험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소개하는 영화 <교환학생의 1년>과 <미국으로 가는 길>가 개봉되었다.⁷

<교환학생의 1년>은 무대가 된 인디애나대학교의 협조로 프랭크 도노반 어

⁷ CIE375 <교환학생의 1년>(1951년 11월 16일 개봉)과 CIE385 <미국으로 가는 길>(1952년 2월 8일 개봉)이다. <交換留學生の一年(Year in America)> 제작: 프랭크 도노반 어소시에이즈, 촬영 협조: 인디애나대학교; <アメリカへの手引(Introduction to America)>, 제작: 프랭크 도노반 어소시에이즈.

소시에이츠(Frank Donovan Associates)라는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사가 제작했다. 〈미국으로 가는 길〉 역시 같은 영화사가 미 육군성 의뢰로 제작한 작품이다. 두 편 모두 후속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이 출국을 앞두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을 때 상영된 것이다. 영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미국에서의 대학생활에 대한 예비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민간 정보교육 영화로서 일본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점령이 끝난 뒤에는 미문화원 영화로서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상영되었다.

1959년에 USIA(미국공보문화교류청, 1959)가 간행한 책자에는 “미문화원 영화 중에서 특히 많은 나라에서 평판이 좋은 것은 그 나라에서의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교에서 배우는 모습을 묘사한 필름이나 그 나라의 교육자, 예술가, 실업가 등이 미국을 여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⁸ 그 이유는 동포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번영한 나라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국민적 자부심을 만족시킬 만한 유쾌한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교환학생의 1년〉과 〈미국으로 가는 길〉도 그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오리엔테이션 영화로서만이 아니라 민간 정보교육(미문화원) 영화로서도 평판이 좋았던 것이 장기 상영될 수 있었던 이유였을 것이다. 일본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활발하고 의미 있게 활동하는 모습은 일반 국민에게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겨 국민적 자부심을 만족시키며 장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했을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일본이 친미 국가로서 미국에 포섭되었을 때 비로소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필자는 이전에 다른 논문에서 민간 정보교육 영화에는 아시아가 거의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土屋由香, 2010). 〈교환학생의 1년〉과 〈미국으로 가는 길〉 또한 아시아와의 관계를 근본부터 새로 만들면서(捨象) 미국에서 사는 미래의 리더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교환학생의 1년〉은 주인공인 츠가와 다케오라는 일본인 유학생 - 아내와 어린 딸을 일본에 남겨 두고 온 30세 전후의 남성 - 의 인디애나 대학교에서의 생활을 묘사한 것이다. 이 필름은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제1기생의 실제적인 체험에 의거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육군성 재교육부가 제1기생에 대한

⁸ USIA. *The Overseas Film Program*. June 1959. RG306, Entry A1 1066, box 153, NACP.

청취 조사를 기초로 작성한 보고서 중에 영화의 줄거리와 흡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대학교에서는 협소하고 특화된 전문 교육으로서 수업방식이 교수의 지식 전수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 유학생들은 자유로운 토론이 중시되는 미국의 교육방식에 당혹해 하며 ‘수준이 낮다’고 오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에드거 앨런 포의 문학을 전공한 한 유학생의 말을 실례로 든다. 학생은 “좀 더 깊은 지식을 위해 미국 유학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은 지식 전수는커녕 학생의 의견을 듣는 것에 치중하니 미국 학문은 깊이가 없고 교원의 질도 낮다고 오해하고 말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본인 유학생들은 도서관에 틀어박혀 미국 사회와의 접점을 끊어버리기 쉬우나, 유학의 목적은 학문적 지식을 얻기보다는 미국의 문화나 민주주의에 대해 실제로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학생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맞춤형 카운슬링 진행과 유학생 스스로 미국의 시스템이 일본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현명함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미국인 룸메이트가 있거나 미국인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 또한 이국 문화의 이해에 유익하다.⁹

주인공인 츠가와는 처음에는 학생끼리의 토론을 중요시하는 수업 스타일이나 스스럼없는 대인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독서에만 몰두했다. 그러나 일본과는 다른 학습방법이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된다. 또 룸메이트의 집에 초대받은 날,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 UN총회의 모습을 TV로 시청하면서 소박한 농가의 가정에서조차 국제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과 견해를 보이는 것에 감탄한다. 마치 가족처럼 상담을 들어 주는 교원, 친절한 룸메이트나 친구들로 인해 마음을 열고 학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호의나 자유로움 그리고 민주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이다.

〈교환학생의 1년〉이 실제로 유학생의 경험에 의거하면서도 출연자의 ‘연기’에 의한 픽션인 것에 비해 〈미국으로 가는 길〉은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제2기 생인 여학생이 예일대학교 유학을 가기 전 동해안의 버드 칼리지에서 6주간의

⁹ *Evaluation of Japanese Student Program*, 6 April 1951, RG331, CIE, box 5488, 미국국립공문서관.

오리엔테이션을 듣는 모습을 실제로 촬영한 다큐멘터리다. 주인공은 ‘학생끼리의 토론에서 배우는’ 것이나 ‘스스로의 의견을 표현하며 발표하는 것’의 소중함을 배운다. 또 슈퍼마켓을 견학해 ‘미국 주부의 일상을 엿보기’나 야외 바비큐를 즐기는 등의 풍요로운 소비사회도 체험한다. 게다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루스벨트가 버드 칼리지를 방문해 옥외 비공식 회합에서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것”이라는 테마로 학생들에게 직접 강연을 하기도 한다.

주인공인 도미이는 실제 인물이다. 도미이 아야코(Tomii, 2004)는 전전의 외교관이었던 도미이 아마네(富井周) 남작의 장녀로서, 호즈미 무네시게(穂積陳重)·우메젠지로(梅謙次郎)와 함께 메이지 헌법을 기초한 도미이 마사아키라(富井政章) 남작의 손녀다.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네덜란드·아르헨티나 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일본 문화보다도 서양 상류사회 문화에 친숙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전쟁 중에는 아르헨티나 일본인수용소(리조트 호텔)에서 보내며 1946년 16세 때 일본으로 귀국했다. 일본어보다도 영어를 훨씬 잘했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세이신(聖心)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에 응모했다. 도미이는 버드 칼리지 오리엔테이션 참가 후, 예일대에서 1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1년 영미문학을 공부했다. 귀국 후에는 NHK 해외방송 부문에서 일했으며,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동기생이었던 실업가 이시자카 야스오(石坂泰夫)[전 경단련 회장·이시자카 다이조(石坂泰三)의 삼남]와 결혼하여 세계 각국을 여행했다. 그 후에는 세이신여자대학과 쓰다주쿠(津田塾)대학교 등에서 영미문학 강사로 일했다.

필자는 2010년 12월, 이시자카(당시 富井) 아키코와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이시자카에 의하면 동기생은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많았는데, 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들은 소수였다. 당시 외무성에서는 “모두 시험을 치른 뒤 유학을 다녀오라고 했다” 한다. 유학생은 남성이 90%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시자카에게 일본은 곧 ‘이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오히려 ‘집으로 돌아왔다’는 느낌마저 들었다.¹⁰

촬영에 대한 이야기는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다. 열차가 작은 역에 도착하면

¹⁰ 石坂章子氏 인터뷰(2010년 12월 5일, 東京大学福武홀 회의실에서).

갑자기 프랭크 도노반 어소시에이츠라는 영화사의 촬영진이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기차로 들어갔다 내리는 모습을 취해 달라”, “이 열차는 뉴욕행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서 촬영을 재촉하곤 했다. 이시자카는 그때 처음으로 “이후에 미국으로 올 사람들을 위한 영화를 만든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영화는 각본도 따로 없었으며, 촬영진이 1개월 정도 버드 칼리지에 머물면서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의 일상생활을 기록하여 나갔다. 촬영이 진행되면서 이시자카 아키코와 나중에 주영대사가 된 기타무라 히로시(北村洸)를 영화의 주인공으로 하자는 계획이 굳어졌다고 한다. 영화에는 음성도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다만, 일본어판 내레이션 더빙은 주인공이 아닌, 다른 일본인 여성의 목소리가 삽입되었다.

또 부분적으로는 ‘연출 연기’를 동원하여 촬영한 장면도 있었다. 예를 들면 기숙사에 처음 들어가 독일인 룸메이트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은 나중에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¹¹ 그러나 슈퍼마켓 장면은 연기가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서 실제로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이 미국의 슈퍼마켓을 체험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다. 영상 속에서 유학생들은 풍부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에 감탄한다. 이시자카는 큰 쇼핑 카트를 밀면서 정육점 앞에서 프랑스인 여학생과 스테이크용 고기를 살지 말지 의논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이나 남미의 상류층 생활에 익숙한 이시자카에게 식생활의 풍요로움은 결코 보기 드문 체험이 아니었다. 오히려 슈퍼마켓에서의 쇼핑은 그녀에게 실로 진귀한 체험이었다. 유럽이나 남미에서 쇼핑은 가정부가 하는 일이었으며, 이시자카와 그녀의 어머니가 직접 식료품 쇼핑을 위해 외출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¹² 미국 만큼 풍요롭지 못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미국 중산층 주부의 쇼핑 체험을 유도한다는 미 육군성의 기획은 이시자카로서는 “가정부 일을 체험해보는” 전혀 의미가 다른 행위였다. 육군성 측의 의도가 미국의 풍요나 주부의 행복을 유학생들에게 공보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다.

11 石坂章子 氏 인터뷰(2010년 12월 5일, 東京大学福武홀 회의실에서).

12 石坂章子 氏 인터뷰(2010년 12월 5일, 東京大学福武홀 회의실에서).

그러나 영화를 보는 일반 일본 국민들로서는 풍요롭고 상품이 한가득 진열된 슈퍼마켓에서 일본인이 쇼핑을 하는 장면은 선망과 관심의 대상이었음은 틀림 없을 것이었다.

인디애나 대학교와 버드 칼리지 두 유학생의 눈을 통해 전해지는 ‘미국’은 한 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민주주의 사회, 소박한 친절, 자유, 풍요로움, 대통령 부인이 학생들과 직접 이야기하는 탈권위, 또 자동차나 슈퍼마켓 등의 물질적인 풍족함 등의 요소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들 영화는 일본인들 스스로가 미국의 장점들을 이야기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설득력을 갖게 한 공보 문화외교 수단이었다.

그와 동시에 민간 정보교육 영화에 묘사된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은 전후 얼마 되지 않아 해외로 진출한 새로운 엘리트층이며, 후에 일본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된 사람들이었다. 영화에 출연한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은 미국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색하는 ‘매개자’였을 뿐 아니라, 일본을 대표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주체적 존재이기도 했다.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오리엔테이션 영화는 일본 국민에게 미래의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 다시 말하자면 ‘국민적 오리엔테이션 영화’이기도 했다. 그 길잡이가 가리키고 있던 방향은 식민제국으로서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고, 냉전 하에서 미국에 포섭되면서 발전해가는 길이었다. 두 영화에 그려진 젊은 엘리트들은 후속 유학생들의 ‘방향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일본 국민을 특정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V. 오키나와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과 〈내일을 이끄는 사람들〉

오키나와의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은 1949~1950년의 제1기 때에는 불과 두 명이었으나 1950~1951년에는 53명, 마지막 해인 1970년까지 총계 900명에 달했다. 첫 해 두 명은 배가 아니라 군용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으나, 제2기생 이후부터는 본토와 마찬가지로 선박을 타고 갔다. 일본 본토의 점

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에게 오키나와 유학생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 존재였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까지 같은 선박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2기생의 회상록 중 오키나와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외무성에서 총리부로 파견되어 나하(那覇) 일본 정부 남방연락 사무소(남편)에서 근무한 후나코시 마모루(船越衛, 1990: 464)뿐이다. 후나코시에 의하면 본토 유학생들이 요코하마(横浜)에서 '코린즈 호'에 승선했을 때 오키나와 유학생들은 이미 승선했던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본토 유학생 161명 회상기에는 그들의 존재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교환학생의 1년>과 <미국으로 가는 길>이 미군정 하인 오키나와에서 상영되었던 것과 달리 <내일을 이끄는 사람들>은 일본 본토의 미문화원 영화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¹³ 이로부터 역시 본토와 오키나와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부각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키나와 유학생들은 본토의 지원기금 유학생들을 '알고 있었지만' 본토 유학생들은 오키나와 유학생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내일을 이끄는 사람들>은 1953년에 미 육군성의 의뢰로 제작되었다. 영화는 오키나와에서 74명의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이 배를 타고 출발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특히 그 중의 4명-오키나와 본토(本島) 출신인 이시카와 모리마사, 야에야마(八島) 출신인 미야라 요에이, 아마미(奄美) 출신인 오카이치 유조, 미야코(宮古) 출신인 의사 다자키 구니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오키나와 지원기금 유학생들 중에 본토 이외의 출신자가 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

유학생들은 류큐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과 신체검사를 받은 뒤 미국인 USCAR 사령관의 축하와 배웅을 받으며 배에 오른다. 영화는 화면이 바뀌어 이시카와 모리마사의 자택이 비추어진다. 이시카와는 연로한 어머니와 아내, 남동

¹³ USCAR. 『CI&Eフィルム目録』, 沖縄県公文書館所蔵(발행 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필름 내용을 보면 아마도 1955년 전후 목록이라고 판단된다).

¹⁴ <Leaders for Tomorrow>, film script, RG306, Entry 1098; <Leaders for Tomorrow(フィルム)>, RG306, 미국국립공문서관. 필름은 전 3권 중 1권만 소장되어 있었다. 제2-3권은 공문서관 직원이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생, 두 명의 자녀에게, 커터 셔츠에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의 모습으로 작별 인사를 한다. 어머니는 말 없이 아들의 여행 준비를 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고, 그 외의 가족들은 카메라맨이 요구하는대로 부자연스럽지만 미소를 지어 보인다. 다시 화면이 바뀌고, 미군 취주악단이 연주하는 화려한 음악과 함께 배에 오르는 청년들이 비추어지면서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이어진다.

6개월간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밀스 칼리지에서 진행되었다. 영화는 유학생들과 교원 간의 스스럼없는 분위기, 영어 집중강의에서 몇 번이나 발음 연습을 하는 모습 등 미국인 자원봉사 교사(대학생)들이 도와주는 장면들이 소개된다. 6개월 후, 유학생들은 미국 각지 43개 대학교에 분산 배치된다. 이시카와는 미야코 출신인 이시미네와 함께 배턴루지(Baton Rouge)에 있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로 가게 된다. 유학생들로서는 부족한 생활비를 걱정하는 날들이 계속되지만, 실은 미국인 학생들도 그다지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주립대학교에서는 학비 면제를 받아 빈곤가정의 자녀들도 대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그리고 대학교 시험농장(試驗農場)에서는 고향과도 같은 작물 - 사탕수수, 쌀, 고구마 - 이 재배되며, 대학교가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산업 진흥에도 공헌한다는 사실도 배우게 된다.

미야라는 오리건 주립대학교, 오카이치는 오하이오 주에 있는 위튼버그 칼리지, 의사인 다자키는 뉴욕의 병원에서 각각 정치학, 경영학,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과 함께 끝을 맺는다.

류큐에서는 이런 젊은이들이 배우는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훈련 중에서 내일의 리더가 태어납니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교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농업 전문가, 비즈니스맨, 행정 전문가, 다리와 도로, 빌딩과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술자 등 미국은 류큐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모든 나라의 진보와 번영만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¹⁵

¹⁵ 〈Leaders for Tomorrow〉, film script.

〈내일을 이끄는 사람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교환학생의 1년〉이나 〈미국으로 가는 길〉과 다른 특징을 갖추고 있다. 첫째, 복수의 유학생이 실명으로 등장해 배를 타기 전의 신체검사부터 장도를 축하하는 환송모임(壯行會)까지, 좀 더 충실한 다큐멘터리 묘사가 되어 있다. 둘째, 유학생 각각의 전문 분야가 명확하며, 추상적인 자유나 민주주의보다도 실용적인 학문을 익혀 돌아갈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셋째, 미국의 물질적인 풍족함이 강조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에서는 가난한 학생이라도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물론 영화 제작자가 오키나와의 특수한 사회적 배경을 의식한 결과일 것이다. 본토보다 압도적으로 전쟁 피해가 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까이에 있을 법한 청년들이 미국에서 실용적인 학문을 익히고 돌아와 향토 재건에 공헌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상상해볼 수 있다. 민주적 생활에 적응했거나 슈퍼마켓에서 쇼핑에 익숙해지는 것보다도 사탕수수나 고구마 재배가 중요한 과제였다. 이 영화는 또 그러한 실용적인 지식 습득을 미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전쟁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여 미국 통치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미국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역효과이며 오히려 가난하고 검소한 미국인들이 고등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지위의 상승을 지향하는 모습이 공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교환학생의 1년〉과 〈미국으로 가는 길〉이 거의 일본과 오키나와 지역 이외에는 상영되지 않은 반면, 〈내일을 이끄는 사람들〉은 다른 개발도상국가에서도 미문화원 영화로 상영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세계 25개국에서 발행된 미문화원 영화 상영프로그램 소책자를 조사해왔다. 그 중에서 〈교환학생의 1년〉과 〈미국으로 가는 길〉은 일본과 오키나와의 소책자 외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내일을 이끄는 사람들〉은 이라크(1964년), 페루(1961년), 파키스탄(1957년) 등에서는 게재되어 있었다.¹⁶ 1950년대 후반부

16 USIS Film Catalogues, RG306, Entry P46, 미국국립공문서관. 25개국은 호주, 캐나다, 실론, 영국, 핀란드, 가나,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일본, 한국, 쿠웨이트, 라이베리아, 말레이

터 1960년대에 중동, 남미,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가에서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내일을 이끄는 사람들〉이 단순한 유학 오리엔테이션 영화가 아니라, 미국의 비호(庇護) 하에 부흥을 이룰 개발 국가의 모델로 간주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영화는 글로벌 문화 냉전의 맥락에서 제3세계에서 미국의 세력 확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VI. 맺음말

이 논문은 1950년대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오리엔테이션 영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 지원기금 유학 제도가 한 역할에 대해 고찰했다. 본토와 오키나와에서는 유학 그 자체의 의미도 오리엔테이션 영화의 의미도 매우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 본토의 지원기금 유학생들을 묘사한 두 편의 영화는 유학 예정자에 대한 실용적인 오리엔테이션 영화이자, 미국을 소개하는 공보 문화외교 영화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다큐멘터리’였으며, 일본 미래에 지침을 주는 ‘국민적 오리엔테이션 영화’였다. 영화가 대표하는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은 일미 양국 간 관계를 중심으로 그 후 경제 대국의 일본을 이끌어 간 리더들이었다. 영상 속 젊은 엘리트들의 모습은, 즉 전쟁~전중의 일본과 아시아의 부정적인 관계를 잊고 미국의 산하로 완전히 편입되는 일본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했다.

한편 오키나와의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생들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살아 남기 위해, 또는 자신의 향토 부흥을 위해 유학길에 올랐다. 그러나 미국 육군성 으로서는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은 인재육성 지원이라는 실용성과 동시에 오키나와 통치를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심리적인 재건이기도 했다. 유학생들을 촬영한 영화는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선전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부흥을 돕는 미국’이라는 이미지가 문화 냉전 속에서 글로벌 헤게모니의 확대를 위해 유포되었다.

시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수단, 베네수엘라, 베트남, 잠비아.

이상과 같이, 세 편의 점령지역지원기금 유학 오리엔테이션 영화 분석을 통해 문화와 학문·지식(學智), 정보 등을 '무기'로 하는 '문화 냉전에서 싸우는 방법'의 구체적인 예를 부분적으로 밝혔다. 유학·영화라는 문화적인 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상국과의 관계 방향성을 결정했는지, 또는 어떻게 대상국 이외 국가의 방향성 설정에 개입하기 위해 이용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그럼으로써 문화 냉전이 단순한 음악과 예술에서의 경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러한 문화와 권력의 관계를 실증해 나가는 문화 냉전 연구가 앞으로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투고일: 2014년 12월 5일 | 심사일: 2015년 1월 9일 | 게재확정일: 2015년 1월 26일

참고문헌

- 〈交換留學生の一年(Year in America)〉. 제작: 프랭크 도노반 어소시에이츠.
 〈アメリカへの手引(Introduction to America)〉. 제작: 프랭크 도노반 어소시에이츠.
 外務省ウェブサイト「広報文化外交>人の交流>留学生交流」<http://www.mofa.go.jp/mofaj/gaiko/culture/hito/ryu/index.html>(검색일: 2015년 2월 10일).
 有光次郎. 1948(昭和二三年十月二六日). 『発社一〇三号』. 都道府県知事宛. CIE, box 5218.
 石坂章子氏 인터뷰. 2010. 12. 5(東京大学福武홀 회의실에서).
 山里絹子. 2014. “米国統治下の沖縄における『米留』制度.” 『米国留学経験者の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と交渉過程』(アメリカ学会 第48回 年次大会, 口頭報告) 沖縄: 沖縄コンベンションセンター.
 碧海美代子. 1990. “女房学生回想記.” コリンズ会 編. 『ガリオア留学の回想 1951~1952』, 1. 東京: コリンズ会.
 大森和子. 1990. “貧しくも豊かな思い出.” コリンズ会 編. 『ガリオア留学の回想 1951~1952』, 107-110. 東京: コリンズ会.
 甕哲司. 1990. “強き良き時代の米国.” コリンズ会 編. 『ガリオア留学の回想 1951~1952』, 84. 東京: コリンズ会.

- 関戸好藏. 1990. “GARIOA留学の記.” コリンズ会 編. 『ガリオア留学の回想 1951~1952』, 22-24. 東京: コリンズ会.
- 高垣健. 1990. “留学寸感.” コリンズ会 編. 『ガリオア留学の回想 1951~1952』, 24. 東京: コリンズ会.
- David 福田. 1990. “A Letter to My Friends in Japan.” コリンズ会 編. 『ガリオア留学の回想 1951~952』, 7. 東京: コリンズ会.
- 沼澤千恵子. 1990. “Rand Hallの友人達.” コリンズ会 編. 『ガリオア留学の回想 1951~1952』, 4. 東京: コリンズ会.
- 原田明. 1990. “大空から愛をそそぐ.” コリンズ会 編. 『ガリオア留学の回想 1951~1952』, 66. 東京: コリンズ会.
- 比嘉幹郎. 2008. “アルバイト体験記”; 金城俊明. “ブラジルに移住して半世紀.” 『ガリオア留学生の足跡』, 那覇: 那覇出版社.
- 東江平之. 2008. “忘れ得ぬ人々.” ガリオア・フルブライト沖縄同窓会編. 『ガリオア留学生の足跡』, 38. 那覇: 那覇出版社.
- 船越衛. 1990. “沖縄のGolden Gate Club, について.” 『ガリオア留学の回想 1951~1952』, 464. 東京: コリンズ会.
- 吉井美和子. 1990. “37年の時が流れて.” 『ガリオア留学の回想 1951~1952』, 3. 東京: コリンズ会.
- 吉田和人. 1990. “This is America!” 『ガリオア留学の回想 1951~1952』, 146. 東京: コリンズ会.
- 吉田文武. 1990. “ColumbiaとYaleに学んで.” 『ガリオア留学の回想 1951~1952』, 45-46. 東京: コリンズ会.
- 片桐庸夫. 2003. “太平洋問題調査会の研究.”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土屋由香. 2009. 『親米日本の構築 - アメリカの対日情報: 教育政策と日本占領』, 東京: 明石書店.
- _____. 2010. “占領期のCIE映画(ナトコ映画) 黒沢清.” 吉見俊哉ほか編. 『日本映画は生きている 第7巻 踏み越えるドキュメンタリー』, 東京: 岩波書店.
- 山岡道男. 2010. 『太平洋問題調査会[1925~1961]とその時代』, 横浜: 春風社.
- 渡辺靖. 2008. 『アメリカン・センター—アメリカの国際文化戦略』, 東京: 岩波書店.
- Annual Report of Activities Supporting Reorientation Program in Japan and the Ryukyu Islands*. July 1951. RG407, FOA, box 1813.
- Ayako, Tomii. 2004. *A Japanese Diplomat's Daughter: An Outsider's Childhood in*

the 1930s and 1940s. iUniverse.

CIE375 〈교환학생의 1년〉. 1951. 11월 16일 개봉.

CIE385 〈미국으로 가는 길〉. 1952. 2월 8일 개봉.

미국국립공문서관. 1951a. *Evaluation of Japanese Student Program*. 6 April. RG331, CIE, box 5488.

미국국립공문서관. 1951b. *GARIOA Student Program for the Academic Year 1952~1953*. 6 August 1951. RG3 31, CIE, box 5485, 5488.

미국국립공문서관. 〈Leaders for Tomorrow〉, Film Script, RG306, Entry 1098; 〈Leaders for Tomorrow(フィルム)〉, RG306.

Reorientation Branch, Office for Occupied Areas, Office of the Secretary of the Army. *Semi-Annual Report of Stateside Activities Supporting the Reorientation Program in Japan and the Ryukyu Islands*. January 1951. 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 原本は米国立国会図書館(NARA)所蔵.

USCAR. 『CI&Eフィルム目録』. 沖縄県公文書館 所蔵.

USIA. 1959. *The Overseas Film Program*. June 1959. RG306, Entry A1 1066, box 153, NACP.

USIS Film Catalogues. RG306, Entry, 46. 미국국립공문서관.

Abstract

The Cultural Cold War and Study-Abroad Orientation Films: The GARIOA Scholars from Japan and Okinawa under the US Military Occupation

Yuka Tsuchiya Ehime University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itiated a study abroad program called GARIOA (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 in Japan, bringing many students from occupied Japan and Okinawa to American universities. This paper examines the cultural cold war exhibited by orientation films by the USIS, including “Year in America”, a film about a male Japanese student, “Introduction to America”, a story featuring a female Japanese student, and “Leaders for Tomorrow”, featuring students from Okinawa. The films were all produced to introduce visiting Japanese students to life as a student in America, but the audience was not necessarily limited to these students. The movies also functioned as an instructional medium that taught the Japanese public about the United States, instilling American values such as liberty and democracy, kindness and public spirit backed by prosperity. Accordingly, they served the purpose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for a defeated nation, while helping to mitigate negative feelings toward the United States. Therefore these films were much beyond simple student orientation material, being a product of a ‘Cultural Cold War’ produced and consumed within the Cold War frame. Interestingly, the use of mainland Japanese and Okinawan students in each film shows how the center (Japan) and the periphery (Okinawa) differed in their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the Cultural Cold

War.

Keywords | Cultural Cold War, Study Abroad Orientation Films, GARIOA
(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s), Japanese mainland, Okinawa

